

다니엘서 강해 미

다니엘서 개요

기록자: 다니엘, 기록 시기: 주전 606 - 536년경, 기간: 약 60년

수신자: 포로 생활 초기에 바빌론에 거하던 유다 백성

주제: 느부갓네살로부터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왕국들에 관한 예언과 역사,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름: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를 뜻한다.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대언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때까지의 온 세상 왕국의 변천을 미리 본 대언자로서 이방인 역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눅21:24).

내용: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바빌론 포로기에 기록되었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대인들의 성전과 수도가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였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일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째 것은 주전 606년경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굴복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때 이루어졌으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때에 붙잡혀 갔다.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다니엘과 관련이 있는 역사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 즉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와 그분의 지상 사역, 로마 제국의 붕괴, 재림과 적그리스도 등을 담고 있다. 다니엘서에는 온 세상 왕국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에 관한 '70 이레'의 예언이 들어 있다. 다니엘서는 12장, 357절, 11,602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 핵심 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2:44), 하늘의 왕국, 4:34-35(하나님의 주권)

핵심 단어: 왕국(57회), 핵심 구: "마지막 날들에"(2:28)

여섯 개의 왕국: 바빌론(2:36-48; 7:4), 메대/페르시아(2:32, 39; 7:5), 그리스(2:32, 39; 7:6), 로마(2:33, 40; 7:7), 적그리스도(2:41-43), 그리스도(2:34-35; 44-45; 7:9-14)

다니엘서의 그리스도: 1. 돌(2:35, 45), 2. 하나님의 아들(3:25), 3. 사람의 아들(7:13), 4. 메시아(9:25), 영적 교훈: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가져오신다."

유대와 이스라엘의 연대기

구약 4,000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BC 1491 이집트 탈출

BC 1095 사울의 등극(40년), BC 1055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됨, BC 1048 열두 지파의 왕이 됨(40년)

BC 1015 솔로몬의 등극(40년), BC 1004 솔로몬 성전, BC 975 왕국의 분열(유다는 르호보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BC 721년 북왕국은 아시리아의 살만에셀에 의해 멸망당함: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254년 동안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 침공을 받음

바빌론 포로 생활(BC 606, 597, 586), 바빌론에서 귀환(BC 536) 총 70년간의 포로 생활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총 389년 동안 타락하고 우상숭배함

바빌론: 성경에 총 286회 나오는 중요한 도시

바빌론(Babylon)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세워진 고대의 유명한 도시. 원래 이곳은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고대의 전설은 이것을 지지한다(창10:8-11의 니므롯). 어떤 이들은 그 이후에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나 느부갓네살이 이곳을 세웠다고 말하는데 세미라미스가 고대의 도시를 재건하고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확장하고 잘 단장했다고 하면 이런 주장들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구 바빌론과 신 바빌론: 구 바빌론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 시대에 존재함. 6대 왕인 함무라비(BC 1792-1750)의 통치,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함

신 바빌론은 BC 620년경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세움, 이것이 성경의 바빌론 다니엘 당시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이 비옥하게 만든 광활한 평야 위에 세워졌다. 성벽의 둘레는 100킬로미터, 높이와 너비는 각각 90미터, 22미터였다고 한다(렘51:44-58). 성벽 주변에는 깊은 도랑이 돌아가며 있었고 도시의 네 면에는 25개의 못 문이 있었으며 도시 안에는 정원과 집이 매우 많았다. 느부갓네살의 궁궐은 둘레가 9킬로미터였으며 여기에 공중 정원이 있었다(단4:29-30).

공중 정원: 세계7대 불가사의, 계단식 발코니 위에 식물을 심어놓은 모습이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음. 식물들이 뽑어내는 푸른색을 보기 힘든 바빌론에서 인공적인 정원을 만들어낸 뛰어난 기술력이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꼽히게 된 이유일 것이다. 메디아 왕국에서 바빌론으로 시집온 사랑하는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만든 것

느부갓네살의 통치 하에서 바빌론은 최고의 영예를 누렸으며 특히 천문학으로 유명했다. 위치적으로 바빌론은 중앙아시아와 아라비아와 이집트 사이를 오가며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금을 걷는 일을 하기에 적합했고 그래서 상인들의 도시라 불렸다(사43:14; 겔17:4). 따라서 온 세상의 좋은 것이 거기로 흘러 들어갔고 그 결과 대언자들은 그것을 '큰 곳', '온 땅에서 칭송받는 자',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 '왕국들의 귀부인'(사13:19; 47:5; 렘51:41; 단4:20)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부유함으로 인하여 여기에서는 부패와 음란한 것들이 극도로 성행하게 되었고 벨, 느보, 네르갈, 메로다, 속곳브눗 같은 우상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더러운 종교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예언되었고 성경은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준엄함을 잘 보여 준다(사 13:1-22; 14:22; 21:9; 47:1-15; 렘25:1-38; 50:1-46; 51:1-64).

바빌론은 영원히 세계의 수도로 남지 못했으며 느부갓네살의 손자 즉 벨사살이 통치하던 때에 다리오가 이곳을 점령하였고(단5:31) 그리스 역사가들의 진술 역시 성경과 일치한다. 그 이후부터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수사를 자신의 왕국의 수도로 만들면서 바빌론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바빌론은 한때 다리오 왕에게 반역하였으나 다리오는 다시 바빌론을 정복한 뒤 거기의 성문을 모두 부수고 성벽의 높이를 25미터 미만으로 줄였다. 페르시아 사람들과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통치 밑에서 바빌론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되었고 결국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거의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말았다. 주후 4세기까지는 바빌론이 있던 곳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거기 거하였지만(벧전5:13) 그 이후부터 바빌론은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유적이 발견된 것도 약 3세기 전의 일이다. 바빌론의 붕괴와 멸망에 대해서는 이사야 대언자의 예언을 참조하기 바란다(사13-14).

또 신약성경에서 음녀 바빌론은 우상숭배, 미신, 사치와 향락에 빠진 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집단의 상징이 되기도 했으며(계14:8; 16:1-21; 17:1-18; 18:1-24) 중세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교황 체제를 가리킨다고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종교 체제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 2세)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나무가 보호한다) 나보폴라사르의 아들로서 주전 600년경에 그의 뒤를 이어 갈대아의 왕이 된 사람. 그는 예레미야서에서 느부갓레살로도 나온다. 그는 이집트 왕 느고로부터 갈그미스를 빼앗았으며 그 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치고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가 후에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 하에 다시 유대에 남겨 두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등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1차 침공). 그들은 대개 왕족이나 귀족이었으며 바빌론 왕은 그들에게 갈대아의 말과 학식을 가르치고 후에 그들이 궁중에서 자신을 섬기게 하였다(왕하 24:1; 대하36:6; 단1:1).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죽자 외부에서 전투를 벌이던 느부갓네살은 급히 바빌론으로 돌아갔고 시리아와 유대와 페니키아와 이집트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갈대아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는 이 포로들을 여러 식민지에 분산시켰으며 또한 벨루스의 신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두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다가 반역을 일으켰고 그 뒤 3-4년이 지나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말았다(렘 22:1-30).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혹은 여고니야) 역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예루살

렘에서 붙잡혀서 주요 관리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이때에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예루살렘의 주요 기술자들도 함께 끌려갔고 모르드개와 대언자 에스겔도 끌려갔다(에2:6, 2차 침공). 느부갓네살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위해 만든 금 그릇들을 가져가고 여고니야의 삼촌인 맛다니아를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시드기야는 9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그 근처의 통치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반역을 일으켰다. 이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로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나 이집트의 파라오호브라가 시드기야를 도우려고 나오자 그를 대면하여 그의 나라로 쫓아버렸다. 이 일을 끝낸 뒤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며 마침내 시드기야의 제11년에 그곳을 함락시켰다. 시드기야 왕은 그때에 시리아의 리블라에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정죄를 받았고 왕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뺀 뒤 사슬로 묶어서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왕하24:1-20; 25:1-30; 대하36:1-23).

느부갓네살의 통치 때에 바빌론 도시와 바빌로니아 왕국은 영예의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는 힘을 다해 바빌론을 치장하였고 그래서 이것은 그의 자랑의 하나가 되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곳이 아니냐?”(단4:30)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물리치셨고 그래서 그는 한때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짐승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단4).

(*) 다니엘서는 여러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말한 세상 왕국의 흥망성쇠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불신 학자들이 여러 있다.

다니엘서 강해 문

다니엘서 1장

느부갓네살(1-2절)

1-2절: 느부갓네살의 1차 유다 침공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 공의 실현 부재: 하나님의 백성이 제 구실을 못함(출19:5-6; 사42:6).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 바빌론이 와서 노략한다(사39:6-7; 미4:10; 합1; 렘20, 25, 7).
바빌론의 예루살렘 함락은 이방 신의 승리로 보였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씌(단 5).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바빌론은 결국 메대/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됨, "History is His story." (단 4:34-35).

유다 패망의 원인(렘5:1-2, 11-13), 바빌론(렘5:15-17), 백성의 어리석음(렘5:21-22), 온 백성의 합작품(렘5:26-31)

우리는 어떤가? 교회의 타락이 심각하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3-16절)

2-4절: 신실함을 유지하며 남은 자들(Remnant)이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수는 항상 하나님을 떠났다. 소수만 신실하였다(롬11:1-5; 사10:20-21)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마7:21-23)

우리 시대에도 바른 말씀, 교리, 교회, 삶을 추구하는 남은 자가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이들은 여러 면에서 뛰어난 자들이었다(왕가의 씨, 지혜, 지식, 학문)

4-7절: 이들은 왕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동시에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들은 철저히 바빌론 사람이 되어야 했다(땅, 말, 이름, 관습, 학문, 음식, 신까지).

이들은 3년 동안 이 과정을 겪어야 했다.

다니엘(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은 벨드사살(벨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

하나냐(주께서 은혜를 보이신다)은 사드락(달신인 아쿠의 명령대로 사는 자)

미사엘(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은 메삭(누가 아쿠와 같으냐?)

아사랴(주님은 나의 도우미시다)는 아벳느고(느보의 종)

하나님이 제거되고 이방신이 들어감

이것은 마치 일반 학교에 다니는 크리스천 학생들이 진화론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언어와 이름은 참을 수 있는데 문화는 어려웠다. 바빌론 사람들은 미신을 섬겼다.

왕의 음식은 바빌론 신에게 바친 제사 음식이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에 위배가 된다, 특히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경우 큰 문제가 됨(레11; 17:10-16)

8-16절: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롬12:1-2): 이기는 사람과 동화되는 사람이 있다

1.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8절). 마음에 작정하는 일이 중요하다(잠4:23). 창39의 요셉(39:9)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a. 렘17:9-10, 시119:9, 11

2.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은혜롭게 처신하였다(잠16:7). 창39:20-23

a. 믿음 때문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예의를 잃지 않았다(롬12:18).

다니엘서 강해 ㄱ

다니엘서 1장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복을 받기 위한 사람이 되라.

다니엘 21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1.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에 작정하였다.
2.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은혜롭게 처신하였다(잠16:7). 창39:20-23
 - a. 믿음 때문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예의를 잃지 않았다(롬12:18).
 - b. 다윗과 사울(삼상24:9-11, 14-15 특히 14)
 - c. 벤전2:13-25
 - d. 한 마디로 신사답게 예의 있게 행동하며 자기들의 과업을 신실하게 수행하였다.
 - e. 마6:33의 실행
 - f.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 g. 이것을 통해 인격의 변화가 생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17-20절: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성공을 주신다.

먹고살려면 훈련을 받아야 한다. 좋은 인생을 살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그분의 선물과 도움을 얻어야 한다. 훈련과 교육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1. 하나님의 복 주심(17절): 이들이 열심히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학문과 지혜의 능숙함을 주셨다. 기도만 가지고는 세상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약2:26).
2. 이들이 배운 것: 바빌론 종교, 점성술 등(지금 식으로 말하면 세속 학문)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Yes or No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행7:22,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 사도 바울, 다니엘, 요셉

세상 학문을 악한 것으로 여기면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산다. 위대한 선진들은 세상의 학문을 주님을 위해 썼다(노래, 작곡, 연극, 영화 등).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한다(전9:10, 9:9; 9:4).

전11:9-10, 12:1, 13-14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다만 동화되지는 말라.

3. 왕의 점검(18-19), 직접 테스트하고 이들의 우수함을 판단함, 바빌론의 모든 학자들보다 10배나 나왔다.

21절: 다니엘

1. 그는 고레스의 제1년까지 일하고(스1:1, BC 536), 제3년에 환상을 보았다(단10:1).
2. BC 606년에 잡혀갈 때 15세라고 하면 그는 적어도 87세 이상을 살면서 여러 왕들을 대하고 지혜자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선포하였다.
3. 또한 70이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였다.
4. 장수가 꼭 복을 뜻하지는 않는다(스데반).
5. 상황이 어렵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신뢰하고 바른 것을 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롬 8:28; 살전5:24).
6.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가,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인가?
7.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이 임한다(말3:16-18; 말1:6-8; 마10:28; 16:26).

다니엘서 강해 ㄴ

다니엘서 2장

2장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 역사를 보여 주는 great chapter이다.

2장에는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로마/적그리스도/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 있다.

2장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도, 다니엘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I.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영을 괴롭게 하심(1)

느부갓네살은 왕국의 미래 등으로 인해 잠을 설쳤다(단2:29; 전5:12).

과거에 하나님은 종종 꿈으로 계시하셨다.

창41의 파라오(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와 야윈 암소 일곱 마리, 좋은 곡식 일곱 개와 마른 곡식 일곱 개)

마2:12, 13의 동방의 지혜자들과 요셉

지금은 꿈으로 일하시는 때가 아니다. 대언 등의 직통 계시는 사라졌다.

암3:7-8의 오용 No! 지금은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신다. 완전한 말씀이 있다. 계시를 찾으려

다니는 자들은 마귀의 술수에 넘어진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렘23:25-32), 특히 29절

II.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심(2-13)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자기가 꾸 꿈을 잊었을까?(5절)

아니면 꿈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바른 해석을 얻기 위해 지혜자들을 시험하려고 사라졌다고 말하였을까?

지혜자들의 대답(10-11절), 다니엘의 대답(27절), 느부갓네살의 말(47절)

이교도들 중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사41:21-23: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시 한 번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옴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제압함(출7-12).

엘리아는 바알의 대언자들을 제압함(왕상18).

신약에서 바울은 키프로스에서 마술사 바예수를 제압함(행13:1-12).

하나님의 이 지혜의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이다(고전1:18-25).

기독교의 위대함: 예언이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신구약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다.

메시아 예언: 적어도 몇 백(초림과 재림)

1. 여자의 씨(창3:15; 마1:20; 갈4:4), 2. 베들레헴 출생(미5:2; 마2:1), 3. 처녀 탄생(사7:14; 마1:22-23; 눅1:26-31), 4. 메시아 앞에 나타나는 사자(사40:3-5; 눅3:3-6), 5. 대언자(신18:15; 행3:20-22), 6. 벨기세텍의 계열(시110:4; 히5:5-6), 7. 범죄자들과 함께 처형됨(사53:7; 마27:38), 8. 부자의 무덤(사53:9; 마27:57-60), 9. 대속의 죽음(단9:26; 막10:45), 10. 승천과 재림 장소 등(행1:11-12; 슥14:4; 12:10; 계1:7)

2.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예언 불가능

3. 예수님이 이런 예언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루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

4.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은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이미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왔다.

다니엘서 강해 ㄷ

다니엘서 2장

III.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드러내심(14-23)

하나님의 사람들 넷을 죽이기 위해 마귀는 자기의 모든 종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음(14)

마귀는 죽음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박 속에 가두어둠(히2:14-15)

A. 다니엘을 위해 시간이 연장됨(14-16), 1장과 같은 종류의 일

B. 믿음의 기도(17-19): 이들은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단6, 9장 참조), 바빌론에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다(왕상8:44-45; 단6:10).

C. 이때에 그 은밀한 일(비밀)이 그에게 드러남(19). secret은 신약의 신비(mystery)와 비슷한 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아는 일(신29:29)

D. 하나님 찬양(20-23):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 찬양

E. 어떤 하나님인가?(21)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역사의 하나님,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21),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약1:5)

F. 시험을 당하면 이 순서대로 해야 한다(행12:1-5).

IV.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심(24-45)

A.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 세상 지혜자들이 찾을 수 없는 것들(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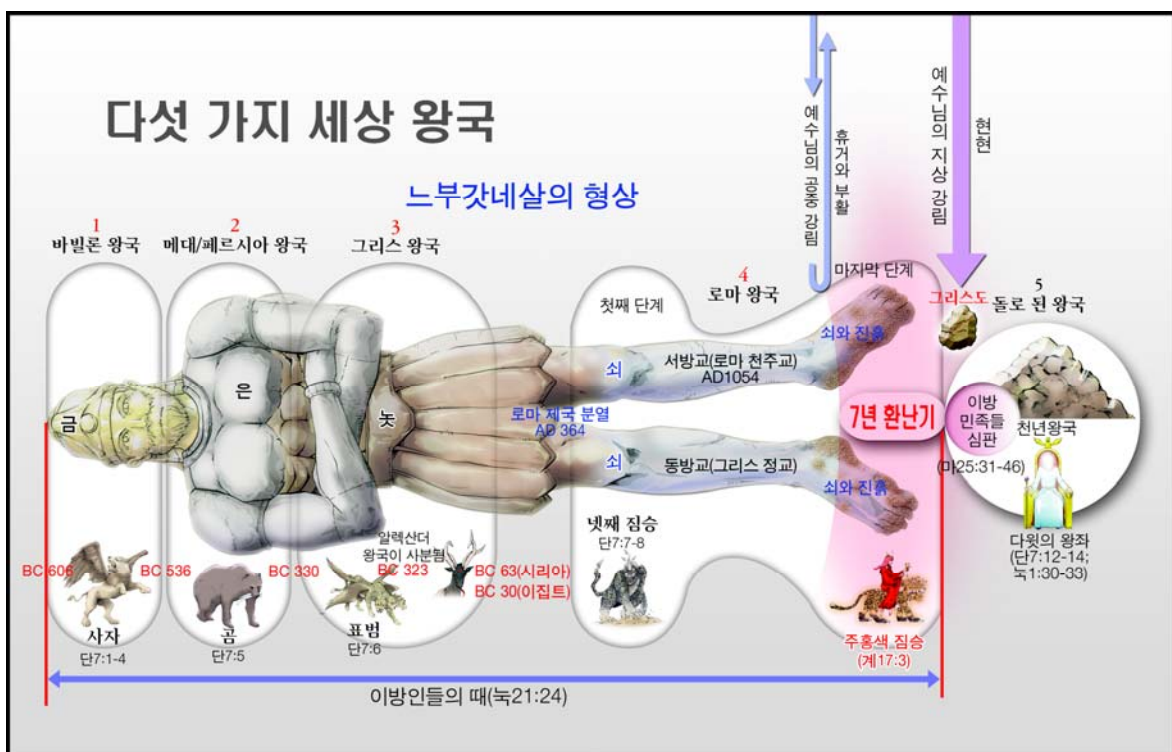
B. 28절은 요셉의 말과 같음(창41:16):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실 것이다.

C. 느부갓네살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하늘의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변천을 보여 주신다(28, 29절).

D. 마지막 날들(latter days, last days, last times)은 많이 나오는 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됨(히1:1-2),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한(창49:1; 신31:29; 단2:28): 그리스도의 재림(호 3:5; 미4:1; 율2:28-32), 교회의 마지막 때는 위험한 때(딤후3:1), 배도의 때(벧후3:3), 교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으로 끝이 난다(살전4:13-18).

E. 큰 형상(31-35절), 금, 은, 놋, 쇠와 진흙, 깎아낸 돌

형상은 세상 왕국의 변천, 예수님은 이것을 이방인들의 때(눅21:24), BC 606부터 시작되어 환난기 끝까지 진행됨(계11:1-2). 그리고 재림으로 끝이 남(눅21:25-28), 27절 참조



다니엘서 강해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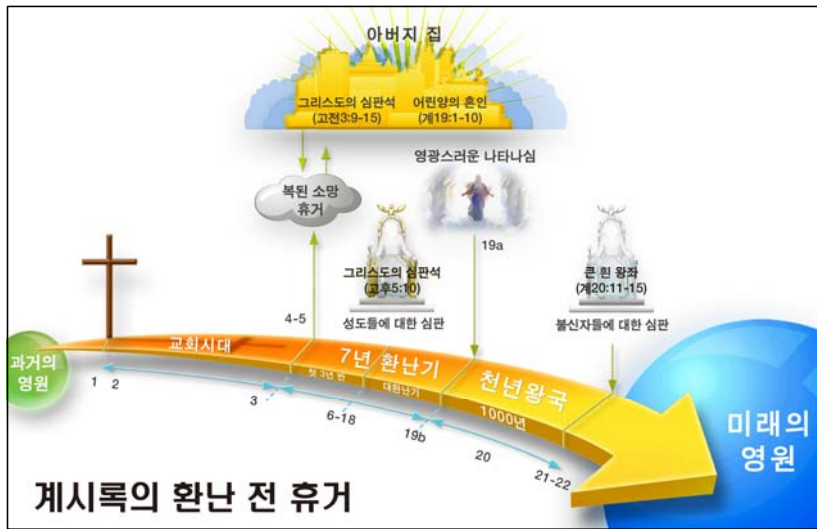
다니엘서 2장

F. 해석(36-45)

1. 금 머리: 바빌론(BC 606-536), 주님의 손에 있는 금 잔(렘51:7)
2. 은 가슴과 두 팔: 메대 페르시아(BC 536-330)
3. 놋 배와 넓적다리: 그리스(BC 330-63(시리아), 30(이집트)), 알렉산더(BC323 사망)
4. 쇠 두 다리, 쇠와 진흙의 두 발(BC 63-30 이후): 로마제국
5. 단8:20-21을 보면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등의 이름이 언급된다.
6. 세상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하늘의 왕국

G. 몇 가지 교훈

1.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 a.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아신다. 섭리로 주관하신다(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 b. 심지어 이방인들의 왕들도 세우신다(2:37-38). 왕들도 멸하신다.
2. 세상의 일들(인간의 업적)은 타락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열역학 제2법칙).
모든 것이 악하고 추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동성애, 인간복제(43절),
3. 세상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혼합된다. 연합이 안 된다. melting pot(행17:26-27)
 - a. 흙에서 나온 인간은 허무함 자체이다(시39:5)
4.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재정립하신다.
 - a. 후천천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5.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마6:25-34).
6. 느부갓네살은 겸손해 질수밖에 없었다(2:37-38).
7.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셨다(롬11:33-36).

V. 하나님의 종들이 영예를 얻음(46-49)

- A. 느부갓네살은 너무도 놀라서 그를 신으로 여기고 경배함(46)
 1. 행10:25-26의 고넬료
 2. 행14:8-18의 바울과 바나바(루스두라 지방 사람들)
- B. 하나님 찬양(47)
- C. 영예를 줌(48-49)

다니엘서 2장: 왕국

문제: 로마 제국 시대(2,000년 전에)에 예수님이 왕국을 세워야 하는데 왜 안 세웠을까?
그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는 왕국으로 결코 멸망하지 않는 왕국이다(2:44-45).
그 왕국은 언제 세워지는가?(계20)

왕국의 필요성

성경은 무슨 책인가? 구원, 마귀 파멸, QT, 고난의 위로/격려, 가장 큰 주제: 하나님의 왕국
왕국: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kingdom'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399회(단수 342+복수 57회), 왕(king)은 총 2590(단수 2256+ 복수 334), 약 3,000회
개역성경 King은 거의 다 왕으로, 그런데 Kingdom은 왕국으로 안 하고 나라 혹은 천국으로 번역함.
Kingdom은 왕권(kingship)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함.
개역성경으로는 성경의 핵심 주제인 왕국을 이해할 수 없다. 왕국: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용 용어로 전략함
왕국 이야기

1. 사탄의 타락
2. 사람의 창조, 땅 위에 가시적인 왕국 건설,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심(창1:26-28), “왕국을 세워라.”
3. 사람은 타락으로 왕국의 통치권을 상실하였고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눅4:5-6; 요14:30).
4.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의 대립, 노아의 대홍수(BC 4400년경), 바벨탑 사건
5. BC 2000년경 아브라함을 부르심, 땅에서 가시적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째 단계를 실행하심.
6. BC 1491년경 이집트 탈출, 모세를 지도자로 하는 신정정치 국가
7. BC 1000년 경 왕정 시작, 다윗의 왕국(삼하7:16) 네 집과 네 왕국,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선다.
 - a. 이로써 아담, 아브라함, 다윗으로 메시아(왕)의 계보가 좁혀짐.
8. 그러나 북/남왕국들은 타락하고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며 결국 BC 606년경 바빌론 포로가 됨
9. 이때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어 유대인들이 세상을 떠돌기 시작함
10. BC 4년경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왕의 출생을 알림(눅1:30-33).
 - a.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마2:2)
11. 그로부터 삼십 년 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함(마3:1-2).
12. 왕이신 예수님도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며 그와 동일한 것을 선포함(마4:17).
 - a.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다.
 - b. 대언자 다니엘: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4).
 - c.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마6:10)
13. 그 이후에 그분께서는 열 둘 제자를 보내시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마10:5-8).
14. 왕국의 복음은 표적들과 이적들과 함께 선포됨(사35:5-6).
15. 그러나 왕은 자신의 백성에 의해 배척당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로써 왕국의 건설은 연기되었다(마23:37-39).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마27:37).
16.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고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게 되었다(롬11:11-12).

다니엘서 강해 ㄱ

다니엘서 2장

단2:44-45의 하늘의 왕국

17. 왕국의 연기를 이야기하시고는 곧바로 마24-25에서 재림 전의 상황을 말씀하심.

- a.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음(마24:3).
- b. 여기의 너희는 다 유대인(4, 6, 9 등)
- c. 재림 전에 다시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진다(14).
- d. 대언자 다니엘의 70일(15, 단9:27; 살후2:3-4)
- e. 겨울이나 안식일 No(20)
- f. 창세 이후로 없는 큰 환난(21)
- g. 환난기 끝에 천체의 변화(29)
- h.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옴(29-30)
- i. 25장으로 가서 1-13의 열 처녀 비유, 그때에 하늘의 왕국, 이들은 교회가 아니라 들리리 처녀들
- j. 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멸망 받을 자들 분리(34, 41, 46)



18.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께 가장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 물었다.

- a.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하매(행1:6-8)
- b. 교회 시대(은혜 시대)가 열림, 재림 때에야 나를 다시 본다.

19. 재림 전의 7년 환난기에 온 세상에 선포되는 복음도 왕국의 복음(마24:13-14), 144,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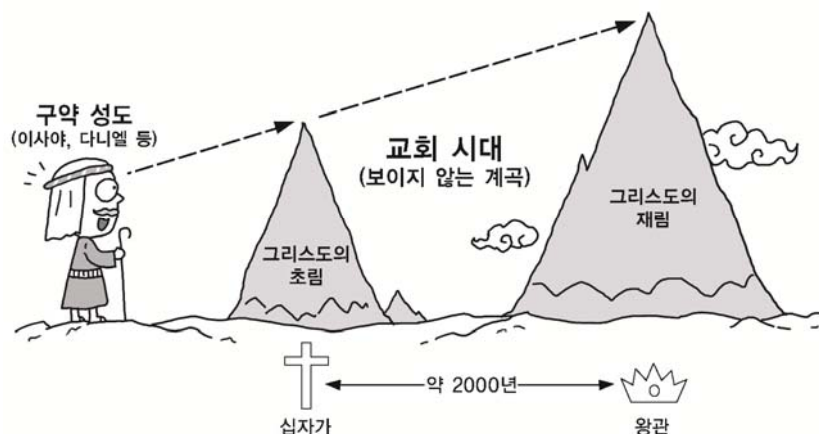
20. 은혜 시대는 7년 환난기 전에 끝나고 환난기 이후에 드디어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21.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시작됨(마25:34)

22. 왕국의 백성: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육체를 입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존재들

구약 예언의 핵심

1. 구약성도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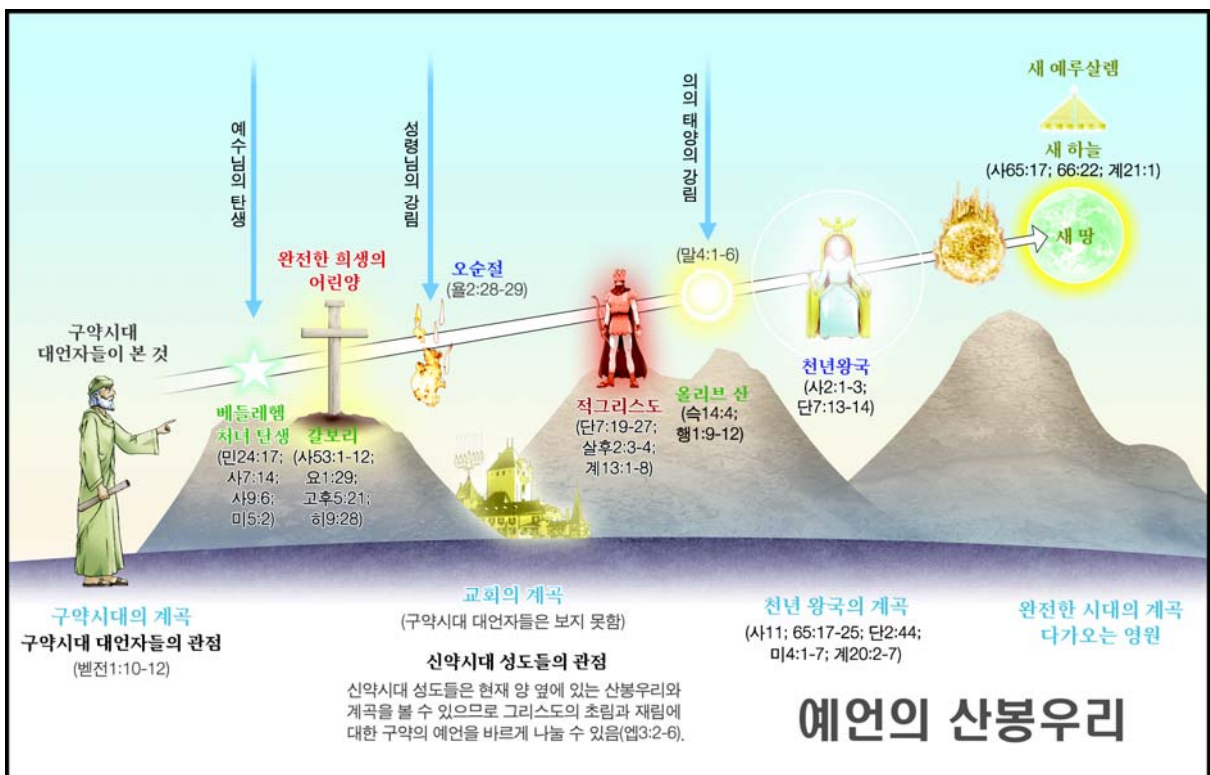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즉 교회는 이들에게 신비였다(엡3:5-6).

2. 구약의 대언자들이 한 일(벧전1:10-11): 고난(초림)과 영광(재림)(눅24:26), 유대인들에게 사53은 가려진 책

- a. 사61:1-2(눅4:16-21)
- b. 사11:1-5는 초림, 6-16은 재림
- c. 사40:1-5는 재림, 그런데 40:3은 초림(마3:3 등), 엘리야와 침례자 요한(말4:4; 마17:10-12)
- d. 렘31:15는 초림, 16-40은 재림(27, 31 등)
- e. 시68:18-20은 초림, 21-23은 재림
- f. 시118:5-29는 초림(22-23등), 그런데 26은 초림과 재림 모두(마21:9; 23:39)
- g. 단2:37-43 초림, 44 이후 재림
- h. 단7:1-8은 네 짐승(세상의 네 왕국), 넷째 짐승 이후에 곧바로 9-14에는 주님의 재림
- i. 단9:26-26은 초림, 26절 후반부터는 갑자기 재림
- j. 심지어 천년왕국 뒤의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로 보임(사65:17; 66:22; 벧후3:13)



천년왕국

1. 왜 천년 왕국인가? 계20:2, 3, 4, 5, 6, 7절 총 6번의 천년 천주교 장로교의 무천년주의 No!
2. 천년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 사람을 속이던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다(1-3). 죄의 유혹이 없는 때, 아담의 에덴동산에도 뱀이 있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 유토피아(전쟁도 범죄도 굶주림도 질병도 없는 세상).
3. 예수님이 왕으로서 철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림(시2:7-9, 12).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슌14:9).
4.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수도가 된다(사2:2-4). 전쟁이 없다.
5.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생긴다(사11:1, 6-9). 초식, 6. 모든 사람이 주님에 대해 알게 된다(사11:9).
7.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약 1,000살까지 살게 됨)(사65:20-22), 8.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다니엘서 강해 10

다니엘서 3장: 금 우상과 용광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 경배했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이 대단히 많다: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분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오히려 그를 교만의 자리로 이끌었다.

신약에도 바울의 경우 셋째 하늘 경험(고후12),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심 영적인 사람의 특징: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아도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다. 단3에서 느부갓네살은 우상숭배를 하다가 4장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한편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단련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불 같은 시험(벧전1:6-7)

1절: 두라 평야의 형상, 60큐빗(27m, 9층 높이), 아마도 2장의 형상을 본 딴 것일 수 있다.

2장의 형상은 사람의 업적을 말함, 60큐빗, 6큐빗, 계13:18의 짐승의 수 666, 7은 완전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6이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마음을 드러냈다. 사람의 일은 그의 마음을 보여 준다.

마음 조심(렘17:5-10)

2-3절: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 형상 앞에 세움

4-7절: 음악 소리가 날 때에 모두 엎드려 형상에게 경배하게 함.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경배하며 삶을 연장하고 있다.

8-12절: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는 경배하지 않다가 고소를 당함. 형상 숭배 No!(출20:4-5)

13-15절: 느부갓네살의 회유

하나님 무시(15)

16-18절: 세 사람의 거부(18절)

마귀의 회유(마4:9)

대단한 믿음 고백(벧전3:15)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벨리스 앞에서 믿음 고백(행24:14-15)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믿음 고백(행26:6-8), 베스도의 말: 네가 미쳤다(24), 아그립바의 말: 네가 거의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28), 바울의 말(29)

19-23절: 용광로를 일곱 배나 뜨겁게 하고는 세 사람을 던져 넣음

24-25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 사람의 아들 No!

하나님의 아들(총 48회, 구약 1회, 신약 47회)

아들의 용례(요5:17-18), 하나님의 아들=하나님, 사람의 아들=사람(시8:4), 신성과 인성 표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행4:36)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시험(마4:3), 마귀들의 인지(마8:29)

제자들의 인정(마14:33), 베드로의 인정(마16:16)

대제사장의 질문(마26:63-66)

백부장의 고백(마27:54)

아들 하나님(God the Son)=삼위일체의 둘째 인격체

26-27절: 그들을 끌어올림(히11:34)

그런데 반드시 구조되는 것은 아니다(히11:36-38). 신약시대의 많은 순교자들

28-29절: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찬양,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천사(갈4:14), 천사는 '섬기는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히11. 롬15:4를 기억하라.

30절: 세 사람의 진급(벧전5:5-6), 사람의 진급은 주님에게서 온다(시75:6).

다니엘서 강해 ㄷ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의 둘째 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단4는 매우 특이한 장이다. 이방인들의 왕이 자기의 교만과 그것으로 인한 수치를 직접 기술해서 온 세상에 알린 일, 교훈(잠16:18)

단3장의 용광로 사건 이후에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있다(4절). 여러 나라 정벌, 공중 정원 건축,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실상을 보여 준다. 그것을 깨닫고 그는 2-3절을 말함.

1. 왕의 또 다른 꿈(4-18)

5-7절: 이번에도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꿈의 해석을 말하지 못함

8-9절: 다니엘을 부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인정함

10-12절: 단2의 형상과 달리 이번에 그는 큰 나무의 꿈을 꾸었다.

13-16절: 그런데 순찰자(watcher)가 내려와 모든 짐승을 떠나게 하고 나무를 베어 그루터기만 남김 천사의 한 등급(고전11:10), 골1:16의 왕좌, 권능, 정사, 통치 등, 창6의 하나님의 아들들=순찰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심장)이 짐승의 심장처럼 되고 일곱 때(7년)가 지나감

17절: 이 꿈을 주신 목적

18절: 다니엘에게 해석 요구,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다시 고백함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고 인식함

경건한 사람, 침례자 요한, 헤롯이 그를 존경함(막6:20)

2. 꿈의 해석(19-26)

19절: 이번에도 예의를 갖추

20-21절: 나무 설명

22절: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단2장의 금 머리(단2:37-38)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국을 건설하고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여 땅의 끝까지 다다름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돌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음.

그는 단237-38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또 자기의 왕국이 멸망되고 다른 왕국이 일어남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단3장의 용광로 사건을 통해 그는 28-29를 말하고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그는 이제 직접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만나고 심판을 받는다.

23절: 순찰자의 선포

24-26절: 왕이 왕좌에서 쫓겨나고 미친 사람이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왕좌를 회복함

그루터기를 소와 뉘 띠로 맨 것(23절)은 하나님의 보호를 뜻함

일곱 때는 7년으로 보임, 5:21을 보면 그가 들나귀들과 함께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마귀가 아무리 흉악하게 날뛰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선으로 갚아 주신다.

즉 그분은 창조자시요, 우리는 창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짐승의 처지로 내려갈 수 있다.

시49:20, 6-9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단7은 세상의 왕국들을 짐승으로 표현한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호칭은 짐승이다(계11:7; 13:1, 18).

그래서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시32:9).

사람의 의무: 자기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사1:2-4)

회개하라(27)

27절: 해석에서 끝을 내지 않고 순종과 회개를 촉구하였다.

예언을 아는 것 중요하다.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회개로 사람을 이끌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회개할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람이다.

눅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9-14)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 계시에 반응하면 더 큰 계시를 주신다.

왕의 수치(28-33)

28절: 이 모든 일이 그에게 이루어짐

29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1년의 시간을 주셨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음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120년을 참으셨다.

예수님 처형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을 주셨으나 회개하지 않음

벧후3:9

30-33절: 그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

교만이 가장 큰 문제이다(잠6:16-17; 11:2).

루시퍼의 죄는 교만(사14:12-15)

아담의 죄 교만, 딤후3:6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참으심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멸절시킬 수 있었지만 아직도 그에게서 이를 일이 있다.

왕의 회복(34-37)

34-35절: 그의 회복과 하나님 찬양

롬11:33-36

자기를 포함한 땅의 거주민은 nothing이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구원 주권이 아니다).

36절: 왕국의 회복

37절: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다. 거짓이 없다.

다시 한 번 교만의 위험을 진술한다.

예수님의 말씀(마23:12)

다니엘서 강해 10

다니엘서 5장: 벨사살과 하나님의 통치

다니엘은 몰라도 '벽에 기록된 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 이 장은 임박한 심판을 보여 준다. 바빌론은 난공불락의 도시로 여겨짐, 해자, 성벽 둘레 100킬로미터, 높이와 너비는 90, 22미터, 돛 성벽, 20년 비축 양식 등

시33:10-11, 비록 바빌론이 정금이지만 끝이 난다. 하나님의 뜻이 선다.

1. 벨사살의 하나님 무시(1-4)

느부갓네살은 BC 562년경 사망, 그 뒤로 그의 아들 에빌르다(2년), 네리글리세아르(4년), 나보니두스 (BC556-539),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바빌론 도시만을 공동으로 다스림

1절: 벨사살은 메대/페르시아 군대가 도시를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잔치

그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염두에 두지 않음

바빌론이 메대/페르시아에 의해 대체된다(단7장)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함

때를 잘 파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삼상25의 나발, 36-38)

2-4절: 그는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였다.

느부갓네살의 칙령과 하나님 찬양(단3:29; 4:34-37) 무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 재판관들의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2. 주님의 심판 선고(5-9)

5절: 손이 나타나고 손가락이 벽에 글을 씌, 혼비백산

하나님의 손가락은 권능 표시(출8:19(티끌을 이로); 31:18(십계명 돌 판); 시8:3(우주 공간); 눅 11:20(마12:28), 손가락은 하나님의 영)

6, 9절: 왕이 두려워 함

7-8절: 지혜자들을 부름.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이방 땅으로 쫓겨났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위엄을 드러내신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특히 청년들이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3. 왕비의 권고(10-12)

5절: 아마도 왕비는 왕의 어머니, 다니엘만 있으면 OK라고 생각함, 이때 그는 80세 정도의 노인 그런데 벨사살은 다니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놀랄 일이다.

그런 사실 그는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22절). 다만 현실에 안주하며 잊고 지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약1:5; 시90:10, 12).

4. 심판 경고(13-29)

13-17절: 왕의 보상 제안, 다니엘은 왕의 제안에 관심이 없다.

18-24절: 다니엘은 왕을 존중하였으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권력은 하늘에서 온다(롬13:1). 그러므로 존경을 표시해야 한다(유8-9).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바르게 말을 하였다.

왕은 다니엘을 몰랐지만 다니엘은 왕의 과거를 잘 앎.

느부갓네살이 뼈저리게 느낀 지식을 벨사살은 무시함(21).

그리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멸시함(23절)

벨사살은 행17:28의 진리를 알지 못함

우리는 어떤가?

25-29절: 주님의 경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베레스의 복수)

글자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해석은 못 하였다.

바빌론의 날들은 세어졌고 이미 끝이 났다. 끝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나서 타인에게 주어졌다. 느부갓네살의 경우 경고 후에 시간이 주어졌지만 벨사살의 경우는 곧바로 끝이 났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해야 한다(고후6:1-2).

5. 심판 성취(30-31)

30-31절: 바빌론의 멸망, BC 539년, 유다의 바빌론 포로 생활 시작 BC 606, 68년 되는 해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친척(삼촌)이다. 이 두 사람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림.

메대(Media, 야벳의 아들 마대 창10:2)는 페르시아(엘람, 셈의 아들 창10:22)의 북쪽,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정복됨. 페르시아의 유화 정책, 메대와 페르시아는 거의 한 나라(단5:28; 6:8, 12, 15 등)

다리오는 바빌론을 정복하고 바빌론의 왕으로 세워졌다(단9:1). 그는 2-3년 정도 통치하였고 결국 메데/페르시아는 페르시아로 합병되어 고레스가 전체를 다스리며 BC 536년에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선포하였다(70년 포로 생활, 통합 왕국의 고레스 1년).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 위에 세워짐.

메대/페르시아 연합군은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 강의 수위를 낮추고 강바닥을 걸어서 성을 공략함. 바빌론의 완전한 멸망은 이미 이사야(사13-14; 21; 47)와 예레미야(50-51)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다.

바빌론은 유대인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으나 너무 심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함(렘 50:33-34).

바빌론은 사13:19-20대로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신비 바빌론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계17:5, 7; 18:2, 10).

바빌론은 늘 예루살렘과 대조된다.

바빌론은 니므롯이 세운 반역의 도시(창10:8-10), 그 이후로 바빌론 문화의 확장, 바빌론 국가 건설, 최종적으로 음녀 바빌론으로 온 세상 장악, 하나님의 최후 심판

벨사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은 악한 국가를 멸하시는 것도 자신의 계획에 따라 하신다.

가나안 족속의 멸절(창15:16)을 늦추심.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고 또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심판을 부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여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역사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한다.

그 전에 구원받고 부활/휴거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재림을 믿으면 삶이 변해야 한다(벧후3:9-18).

다니엘서 강해 11

다니엘서 6장: 다니엘과 사자들

여기의 다리오는 메대 사람으로 고레스가 바빌론을 통치하도록 임명한 자다(5:31; 9:1).
다리오가 새로 왕국을 정비하려 하면서 신하들과 다니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짐. 다니엘은 80세 정도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일할 때 단6의 음모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정직과 부패(1-4)

1절: 왕국의 정비, 2절: 총리 셋 임명

3절: 왕국을 정비하면서 그는 정보를 수집하였고 다니엘에 대하여 알게 됨.

그는 뛰어난 영이 있었다: 정직과 지혜,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자기 왕국을 다스리게 하려 함

4절: 다른 신하들(젊은이들)이 그를 싫어함:

1. 시기, 2. 포로인 유대인의 치리 No!(반 셈족주의, Anti-Semitism, 이집트의 파라오, 나찌 히틀러, 환난기의 용 계12): 이들은 창12:1-3을 모름, 3. 재정 문제, 4. 늙은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함

122명의 통치자들이 다 살펴봐도 모든 면에서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었다. 그는 신실하였다.

믿음(faith)의 사람은 신실해야한다(faithful). 믿음직스럽다.

늘 있을 자리에 있는 사람, 태양의 뜨고 지는 것, 고전4:1-2

요셉과 다니엘은 승진하였으나 많은 성도들이 바르게 살다가 오히려 해고당하기도 한다(요즘 미국에서 동성애 프로테스트 잡혀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진실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마6:33). 벰전3:13-17

믿음과 음모(5-11)

5절: 그래서 종교적인 이슈를 들고 나옴

6-7절: 왕국의 모든 통치자들이 왕의 마음을 돌림

왕은 지금 바빌론을 정복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함.

그러던 차에 이들이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자니까 왕은 왕국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김
순종하지 않으면 사자 굴에 넣기로 함

8-9절: 변개할 수 없는 법에 따라 도장을 찍음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아침하는 자들의 꾀에 넘어갔다(시5:9).

10-11절: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아침과 정오와 저녁 기도를 함(시55:17).

예루살렘을 향해서(왕상8:28-30; 38-39; 46-51), 심지어 요나도 이렇게 함(욘2:4)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포로생활이 70년임을 알고 있었다(9:1-2).

아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표적

사실 이것은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 한 것과 비슷하다(에3-9장).

그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기에 이 일을 하였다(행5:29).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 중에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부분이다(마6:1-7).

12-13절: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다가 드디어 다니엘이 그들에게 발각됨(빌4:6-7).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단1, 2, 3, 4, 5).

또한 예레미야의 책을 읽었다(렘32:27).

이들은 분명하게 다니엘이 유대인임을 부각함(13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핍박을 당함(딤후3:12).

사실 고난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증표이다(행5:41).

14-18절: 왕이 고통을 당함. 그는 자기의 일 처리 방식을 미워함.

그는 수치스럽게도 간신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함.

- 다리오의 지금 신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말을 바꾸는가?
 16절: 다만 그의 하나님은 그를 구출해 주실 것을 기도함
 17절: 무덤에 봉인을 씌(마27:65-66).
 18절: 음악도 끊고 금식함

하나님의 승리(19-23)

- 19-20절: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다리오가 고백함, 죽어 있는 우상이 아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고 유지하시는 분
 21-22절: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11:33). 천사를 보내셨다(시34:7; 91:11).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들과 함께 하였다
 수태고지(눅1:26-35)
 탄생(눅2:7-14)
 시험(마4:1-11)
 겐세마네(눅22:39-44)
 부활(마28:1-7)
 승천(행1:9-11)
 천사는 섬기는 영(히1:14): 우리의 삶속에서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왕 앞에서 무죄하였고 해를 끼치지 않았다(22절). 매우 중요함
 23절: 다니엘의 믿음이 그를 구함, 그래서 그는 믿음 장인 히11에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다 시련에서 구출받는 것은 아니다(히11:1-35와 36-40 비교).
 24절: 음모자들의 처형,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만(11절), 잠11:8; 26:27
 이집트의 파라오: 남자아이들 처형, 유월절에 장자들 죽음
 에스더서의 하만, 오히려 교수대에 달려 죽음
 25-27절: 주님이 영광을 받음
 26절: 다리오의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2:47; 3:28-29; 4:1-3; 34-37)
 아이러니: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포로 생활,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알려짐
 이런 칙령을 통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함을 알게 됨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27절: 한나의 기도(삼상2:6-10)
 28절: 다니엘이 형통함, 다리오 이후 2-3년 뒤에 고레스가 페르시아/메대/바빌론을 통합해 왕이 됨.
 그는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칙령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됨(대하36:22-23; 스1:1-4)

결론

-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용광로 사건
 다니엘의 사자 굴 사건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들은 살면서 불 같은 시험을 당한다(벧전1:6-8; 4:12-19).
 또 울부짖는 사자의 위협을 받는다(벧전5:8-10).
 이때에 이 세 사람과 다니엘을 기억하자.

다니엘서 강해 1군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의 환상, 왕국의 성취

7,8장은 5,6장 전에 있던 일이다. 다른 사람의 환상, 7-10장에 다니엘 자신의 환상
7장의 환상은 2장의 환상과 같은 맥락으로 주어지고 특히 적그리스도를 잘 보여 준다.

세상 왕국의 변천(1-7)

1절: 벨사살의 통치 1년에 주어짐.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 아버지는 나보니두스, BC 553년경에
공동 왕이 됨. 다니엘은 65세 정도

2-3절: 대해(지중해)에서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두렵고 무서운 짐승
네 짐승은 네 왕 곧 네 왕국(17절)

단2의 형상: 사람의 눈에는 멋있고 인상적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서로 잡아먹은 짐승처럼 보임,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의 호칭은 짐승임(계13:1, 18)

4절: 사자와 독수리, 형상의 정금, 성경은 바빌론을 사자와 독수리로 표현함(렘4:7, 13; 합1:6-8).
짐승이 사람과 같이 서고 사람의 마음이 주어지는 일은 단4:16, 28-34의 느부갓네살

5절: 곰, 형상의 은, 메대/페르시아, 8장의 둘 뿔을 가진 숫양
세 개의 갈빗대: 루디아, 이집트, 바빌론으로 보는 견해

6절: 표범과 네 날개, 형상의 동, 8장에는 네 머리와 네 뿔 등 넷으로 표현됨(8:8, 21-22).
알렉산더 왕국은 넷으로 분할됨: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는 프톨레미(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시리아는 셀레쿠스(셀레우코스), 트라키아와 소아시아는 리시마코스, 마케도니아
와 그리스는 (안티파테르)와 카산드라(카산드로스)

7절: 쇠로 된 로마 제국, 형상의 쇠, 신상의 열 발가락은 여기서 열 뿔로 나타남
적그리스도의 왕국(8, 19-27)

8절: 적그리스도의 왕국, 단2에는 계시되지 않은 것

19-27절: 넷째 짐승과 작은 뿔 설명

이 왕국의 적그리스도는 심지어 하나님께 대항함(25)

이것은 계13-19에 기록된 7년 환난기의 적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멸절됨(사람을 손으로 깎지 않은 돌 왕국, 단2:34-35, 44-45).

열 뿔(7:7-8; 24, 계13:1; 17:3, 7, 12, 16)

열 왕국은 유럽 연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 제국의 연장이요, 바빌론 문화 및 종교의 분산이다.



작은 뿔(7:8, 11, 24-26): 그 왕국의 치리자

적그리스도=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살후2:3-4), 계13:1-10, 그는 세 왕(왕국)을 정복하고 파위를
차지함

사람의 눈 같은 눈: 지식과 지혜와 계략이 뛰어난

큰일들을 말하는 입(7:11, 25; 계13:5-6), 살후2:4

그는 세상의 정치와 종교를 장악할 인물, 종교는 음녀의 도움으로, 끝에 음녀가 살해됨(계17:16).
음녀와 짐승은 다르다.

그의 통치 기간(7:25), 그의 기간 3년 반(계12:14), 1260일(계11:3; 12:6), 42달(계11:2;
13:5)

단9:24-27의 마지막 한 이레, 한중간에 그가 언약을 파기함. 3년 반의 대환난기
성도들에 대한 전쟁: 여기의 성도들(단7:18, 21, 22 2회, 25, 27)은 환난기 성도들이다.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없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계곡이 드러나지 않음.

환난기에 이 땅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다. 앞뒤 문맥상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7:21, 25; 계12:13-17).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도들이 악한 무리들을 이긴다(18, 22, 27).

그리고 왕국을 취하고 소유한다(7:18, 22, 27).

다니엘서 강해 13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의 환상, 왕국의 성취 그리스도의 왕국(9-14, 27-28)

2장: 세상 왕국의 변천이 신상을 통해 나타남

7장: 세상 왕국의 변천이 짐승들을 통해 나타남: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두려운 짐승
적그리스도(1-8절, 15-26절)

9절: 세상 왕국들의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의 환상.

드디어 옛적부터 계신 이(7:9, 13, 22)가 나타남(영원무궁토록 계시는 분), 이분은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심, 그리스도의 모습(계1:14), 그룹의 바퀴들(계1:1-6, 13, 15-18)

10절: 불 같은 시내, 수많은 존재들이 그분을 섬김, 무수한 천사들(히12:22)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짐, 큰 흰 왕좌 심판(계20:12)

11절: 8절의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왕국이 무너지고 짐승이 불 호수에 던져짐(계19:20)

12절: 나머지 왕국들은 다음 왕국에 의해 정복되지만 잠시 동안 명맥을 유지함

13-14, 27절: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후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마3:2; 4:17; 마5의 산상 수훈의 왕국(5회), 6:10, 23:39의 왕국) 등
사람의 아들이 다스리는 영원무궁한 왕국: 다윗 왕국(삼하7:13, 16, 눅1:32-33)
시2:8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왕국, 계11:15

눅19:12-27, 왕권을 받으러 가는 귀인(눅12:36), 왕권을 받은 뒤에 오시는 분(마16:28)

천년왕국

1. 왜 천년 왕국인가? 계20:2, 3, 4, 5, 6, 7절 총 6번의 천년

천주교 장로교의 무천년주의 No!

2. 천년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 사람을 속이던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다(1-3).

이때는 죄의 유혹이 없는 때, 아담의 에덴동산에도 뱀이 있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

유토피아(전쟁도 범죄도 굶주림도 질병도 없는 세상).

3. 예수님이 왕으로서 철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림(시2:7-9, 12).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슌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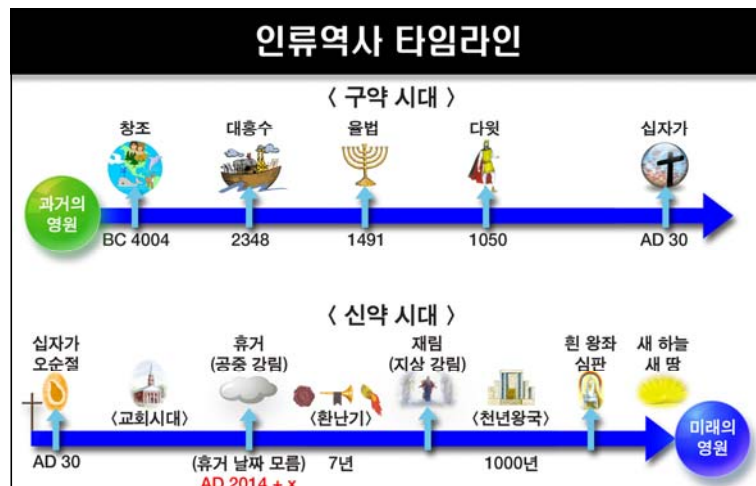
4.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수도가 된다(사2:2-4). 전쟁이 없다.

5.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생긴다(사11:1, 6-9). 초식

6. 모든 사람이 주님께 대해 알게 된다(사11:9).

7.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약 1,000살까지 살게 됨)(사65:20-22)

8.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다니엘서 강해 14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의 환상, 왕국의 성취

단7의 결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국들을 멸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 성취, 이 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영원이 이어진다(계21:1).

다니엘의 반응

세상 왕국의 변천, 그리스도의 왕국, 포로생활 중의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소식

그러나 그는 이 놀라운 계시를 보고 오히려 몸이 아프고 일도 못하게 되었다(28).

그리고 비밀로 하고 말하지 않았다. 바울의 고후12장과 같다(4절).

천국/지옥 이야기를 하고 다니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아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의 또 다른 환상, 마지막 때의 일

7장은 벨사살 왕의 제 1년에 받은 계시, 8장은 제3년에 받은 계시

구약성경은 히브리말로 대부분 기록되었는데 단2:4-7:28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다(이방인 왕국).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 에스라 4-6장 등

셈의 아들: 아르박삿과 아람 등(창10:22)

아람어: 시리아, 아시리아의 언어,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뒤 아람어를 많이 사용함

특히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아람어를 사용함

종교(경전) 언어: 히브리어, 생활언어: 아람어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계시

히브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요4:22)과 종말 계시가 주어짐: 계시록도 유대교 색채가 강하다.

이제 바빌론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음

이 상태에서 8장은 곧 일어날 메대/페르시아와 그리스 왕국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 줌
특히 그리스 왕국에서 일어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적그리스도를 보여 줌.

1-2절: 엘람 지방의 수산 궁에 있었음. 수산 혹은 수사는 바빌론 당시에는 미미한 도시, 300킬로미터 떨어져, 후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됨(느1:1; 에1:2). 율래 강은 수산을 통과해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합쳐진 강과 만나는 물길 혹은 도시의 운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

다니엘이 계시를 받으러 수산으로 갔을까? 갔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려 수산에서 계시를 받게 할 수도 있다. 에스겔은 바빌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일을 보았음(겔8, 10).

이제 메대/페르시아가 등장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려 미리 보여 주셨을 가능성도 있다.

3-4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두 뿔 달린 숫양, 나중에 난 뿔이 더 김.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 후에 페르시아로 통합됨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함, 리비아, 이집트, 소아시아, 인도 등을 정복함.

20절: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

고레스: 대언자 이사야는 이미 18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기록함(사44:28), 그를 목자요, 기름 부은 자로 부름(사44:28; 45:1), 하나님의 일을 집행할 자(사45:3-4), 바빌론 포로 생활 귀환 명령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빌론을 정복한 뒤 바빌론의 왕으로 세워짐(BC 539, 단5:31; 9:1).

2-3년 후에 고레스가 메대/페르시아/바빌론 등을 통합하여 전 제국의 왕이 됨(BC 536)

원래 고레스는 페르시아 전 제국의 왕이 되기 24년 전인 BC 560년경에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됨
그 뒤 메대 정복, 바빌론 정복(다리오에 의해), 그리고 BC 536에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됨.

스1:1의 '고레스의 제일년'은 그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해를 뜻함

5-8절: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21-22)

분노하는 솟염소: 너무 빨리 다니므로 발이 땅에 닿지 않음, 솟양을 죽임

그런데 그가 강성하다가 갑자기 죽고(BC 323년) 네 뿔이 올라옴(단7:4-7; 11:4).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시리아는 셀레우코스, 트라키아와 소아시아는 리시마코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카산드로스

알렉산더의 업적: 1. 그는 동방 세력이 유럽 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함

2. 그리스 특히 코이네 그리스어가 정착되게 함. 온 세상이 그리스어를 공통어로 함.

3.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신약성경이 기록됨

4. 이 후에 로마 사람들이 길을 닦음으로써 신약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이런 환상이 알렉산더의 왕국 정복 230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됨(BC 550년경): 다니엘서를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남

다니엘서 강해 15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의 또 다른 환상, 마지막 때의 일

메대 페르시아(8:3-4, 20),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5-8; 21)

그리스 제국의 분열(이집트와 시리아)

시리아의 작은 켈 하나가 세력 확장(9-14), 유대인들 핍박, 성소를 더럽게 함. 멸망의 가중한 것, 2300일 동안 성소가 황폐하게 됨(가까운 미래)

이에 대한 설명(23-25): 적그리스도(먼 미래)

I. 9-14절: 성경의 많은 예언은 2중적인 성격이 있다.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마24장의 올리브 산 강해, 성전 파괴 예언(1-2), 어느 때에 (3), 구체적인 일(눅21:20): 예루살렘 황폐, 이것은 AD70년에 이루어짐. 그런데 이 시대의 마지막 대환난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남. 예언의 2중 성취를 놓치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요즘 베리칩 문제,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이므로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유튜브 동영상에 베리칩 미혹 기사가 매우 많다.

데이비드 차. <마지막 신호 The Final Sign>, 이현숙 저. <마지막 기회>, 장조셉 저. <베리칩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 이정철 저.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김용국 저. <성경에 기록된 영생의 CODE>, 장화진 저. <신세계질서의 비밀>, 조엘 레비. <비밀과 음모의 세계사>

<베리칩은 과연 666 짐승의 표인가?> -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 서(안), 핵심은 “아니다.”이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대단히 부실하다.

a. 666 짐승 표는 베리칩이 아니라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이다.

b. 표를 받는다는 것은 상징이다.

c. 결국 계13장의 내용은 과거 로마 제국과 로마의 종교의 행태를 나타내는 내용이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 예언의 2중 성취를 놓치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의 성취는 최종 성취가 아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의 대언서는 특히 2중 예언 구조로 되어 있다(바빌론 회복, 재림 회복), 안식교도 항상 짐승은 로마라고 말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천주교 교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다니엘서 8장을 보면서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

a. 먼저 9-14절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BC 175-164)에 의해 이루어짐

b. 23-26은 환난기에 이루어짐

II. 가까운 미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단11장 전체)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 중의 하나, 에피파네스는 ‘빛을 발하는 자’를 뜻함(루시퍼)

자신이 신들의 현현이라고 주장함, 스스로 제우스라고 주장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형(17, 19절, 23-25, 26절 참조)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매일 전쟁,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헬레니즘 문화 강요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도피함.

A. 제사장들의 부패: 대제사장이 권력의 실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1.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 그가 안디옥에 가 있는 동안 그의 동생 야손이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2.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BC 174년경).

a. 또 적극적으로 헬레니즘화를 장려할 유대인 지도자를 갖게 된 것에 기뻐했다.

b. 그는 야손의 요청에 따라 예루살렘에 그리스 도시(폴리스)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c. 야손은 체육관을 만들어 젊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곳에서 경기를 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의 구별 의식이 없어짐).

3. 3년 후 제사장 가문에 속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메넬라오스가 더 많은 뇌물을 바쳐 대제사장이

되고 야손은 도망하였다. 메넬라오스는 안티오쿠스에게 돈을 주기 위해 성전 보고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렸다.

4. 오니아스 3세가 이 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메넬라오스는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5.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를 정복하며 바쁘게 지내는 사이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야손은 1,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메넬라오스에게서 대제사장직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안티오쿠스는 죽지 않았다.
6. 안티오쿠스는 야손이 그런 반역 행위를 했고 자신의 헬레니즘화 정책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자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B. 마카비(마카베오) 반란: 주전168년경, 셀레오쿠스 왕조의 강압적인 그리스 문화 강요

1. 유일신을 섬기던 유대인들의 반감
2. 주전 169년부터 주전 167년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됨
3.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유대교의 관습이 금지되는 사태가 연거푸 발생했다. 할례를 받으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4. 주전 168년 에피파네스는 자기의 장군에게 예루살렘을 약탈할 것을 명령함, 예루살렘 성전 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제우스에게 성전을 봉헌함
5. 주전 167년 리시아스 행정관의 지휘 하에 반 유대적 포고령 선포, 매일 드리는 성전 희생 제사를 금하고 제단에 돼지 피를 드림으로써 이 성전을 더럽혔고 근 3년 동안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함, a. 성전을 제우스에게 바침, b. 돼지를 잡아 바침, c. 구약 성경 말살
6. 주전 167년 모디인 마을에 파견된 관리와 제우스에게 희생물을 드린 배교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함(마타디아스 제사장 가문 주동)
 - a. 마타디아스의 다섯 아들: 존(Jone), 엘리에저(Eleazor), 시몬(Simon), 요나단(Jonathan), 유다(Jude)
 - b. 이들은 '망치'를 뜻하는 마카비 혹은 마카베오라 불렸다.
 - c. 이들이 함께 산으로 도망하여 혁명운동 시작 + 보수적인 하시딤 합류
 - d.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4년에 죽고 유다 마카비는 군대를 예루살렘에 진입시켰다.
7.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에 들어온 것을 축하하여 기원전 164년 12월 25일에 성전이 새롭게 봉헌되고 일주일(8일) 동안 축제가 벌어졌다. 이로써 율법에 합당하게 예배가 다시 드려졌다.
8. 이때부터 유대교는 매년 성전 봉헌(히브리어: 하누카, 요10:22, 개역성경의 수전절) 축제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며 빛이 암흑과 어둠을 쫓아내는 표징으로 등불을 점화하였다.

C. 성경 설명

1.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기쁨의 땅(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옴(9절).
2. 그의 뒤에는 유대인들을 박멸하려는 마귀가 있다.
3. 에피파네스(그 뒤의 마귀)의 세력이 커지면서 하늘의 군대까지 닿음. 사14장과 연관됨(10절). 에피파네스 자체가 제우스를 가리키며 적그리스도의 예표
4. 단순히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5. 심지어 그가 군대의 통치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함: 적그리스도의 모형(11절)
6. 성소가 훼파되고 희생물이 제거됨, 7. 헌물 드리는 것을 반대하며 형통함(12절)
8. 2,300일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됨(13-14절). 2,300일(6년 4개월 20일, 360일 환산)은 BC 164년 12월 25일부터 계산하면 BC 170년 8월 5일, 사실 그 당시 안티오쿠스는 이집트를 치러 가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살해하다가 결국 성전을 황폐하게 함.
9. 너무나 정확하므로 다니엘서를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남

다니엘서 강해 16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의 또 다른 환상, 마지막 때의 일

14절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가 아니라 땅의 성소이다.

15-16절: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단8:16; 9:21; 눅1:19, 26)

천사는 성경에서 언제나 젊은 남자로 나타난다. 여자 천사, 아기 천사 등 없다(계21:17).

17절: 천사에게 경배하는 사례가 또 있다(계22:8-9). 여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경배를 받음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대한 것, 세상 끝을 말한다. 환난기의 끝 즉 메시아가 임하기 바로 전
시대를 말한다(단12:1-2).

이때에 미가엘이 등장한다(12:1).

18절: 다니엘이 지쳐서 잠이 듦(27절: 10:9)

격노의 끝, 적그리스도의 격노, 그 끝은 정해진 때에 임한다(9:24 이후의 70 이레).

20-22절: 이미 설명했음

III. 먼 미래: 적그리스도

23절: 시간을 뛰어넘어 드디어 격노의 인물이 등장함

신비를 아는 자

24절: 그의 권세는 마귀가 준 것이다(계13).

그가 유대인들을 핍박함

24절: 그가 하는 일

결국 그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멸망됨(살후2:8).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70이레

성경의 예언은 제대로 잘 선포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였다(신18:20-22).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보고 문맥 안에서 무리하지 않게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단8-12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다.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마24-25, 계4-19는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다.

1절: 다리오가 바빌론을 점령하고 고레스에 의해 왕으로 세워짐(단5:30-31), BC 539년, 7장은 벨사살
의 제1년(BC 553년경), 8장은 제3년(BC 550년경), 그러므로 9장은 8장 이후 11년 정도가 지난
뒤 주어짐

2절: 예레미야서를 통해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임을 알게 됨

‘주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25:1-14: 포로생활의 이유와 기간
(11-12), 렘29:10-14도 기간(특히 10절), 70년인 이유: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레26:40-42;
대하36:19-21).

70년 포로 생활: (1) 불순종의 결과(레26), (2) 땅이 다시 힘을 얻음, (3) 다니엘의 위로
렘36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북북 찢어 화로에 집어넣는
대목이 있다(20-23).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게 하심(27-28, 32). 시12:6-7; 마24:35
다니엘은 포로생활이 BC606년에 시작되었으므로 이제 3년만 더 지나면 끝이 날 것을 알았다.

다니엘서 강해 17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70이레

3-19절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

3절: 기도를 위한 준비(금식), 그는 기도의 사람(6:10-11)

여기서 그는 특히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레26:40-45; 대하7:14)

금식은 신약시대에도 중요하다.

fasting: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금식했으며 이것은 본성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다. 사실 이러한 때에는 몸이 영양분 섭취를 거부하면서 굶주림으로 인한 식욕을 유보시킨다. 성경을 보면 모세 이전에는 금식이라 할 수 있는 예가 없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처럼 40일 동안 금식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신9:9; 왕상19:8; 마4:2).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자 할 때 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자 할 때 금식했다(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20:26; 블레셋으로 인한 미스바 금식 삼상7:6; 다윗의 아이로 인한 금식 삼하12:16; 엘리야의 금식 왕상19:8; 느9:1; 렘36:9). 또 공적인 재난이 임할 때 그들은 특별 금식을 정하고 젓 먹는 아이까지도 금식했다(을2:16; 단10:2-3). 그들은 해가 질 때에 금식을 시작해서 다음 날 그 시간까지 금식했으며 또 매년 속죄일(7월 10일, 욥 키피)을 금식하는 날로 정하고 모두 금식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만 금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신문, 자기 쾌락 등을 금하는 것도 fasting이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어떤 금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암시한 적이 있다(눅5:34-35). 실로 그분의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금식하는 삶이었다(고후6:5; 11:27). 우리 주님은 금식의 관습을 인정하셨고 사도들은 필요한 때에 그것을 실천했다(마6:16-18; 행13:3; 고전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마17:21), 없음행10:30; 고전7:5; 고후6:5 금식 삭제: 마지막 예에서 먹지 못하는 것과 금식은 다르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누르는 것이다.

4절: 하나님 찬양,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 하나님의 성품 찬양(스9:3-5; 느9:5-6):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5-15절: 백성의 죄악 고백

11절: 모세의 저주(신28)

12절: 예레미야애가(1:1-2; 4:1-4; 9-10)

16-19절: 공허 간구, 은혜와 공허

20-27절은 기도의 응답과 70이레

20-21절: 기도의 응답

가브리엘(8:16)이 그에게 손을 내밈, 그는 바빌론에 있지만 영과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음 저녁 봉헌물을 드릴 때: 오후 3시(출29:38-41; 왕상18:36; 행3:1; 10:30)

천사가 신속히 날아갔다고 하니 날개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총알, 화살, 미사일은 날개가 없어도 신속히 날아간다.

22절: 능숙함과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언과 관련이 있다.

23절: 간구가 시작될 때, 정확히 언제부터 했는지 모름

그 일과 그 환상(계시):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한 일,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 구체적으로는 24-27절에서 설명된 것, 8장의 환상이 아니다. 8장은 70년, 70이레 등에 대한 것이 아니다.

22-23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 일을 하게 하심(히1:14).

다니엘서 강해 1부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70이레

24절: 유대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70년이 아니라 70이레를 정하였다.

여기의 이레는 단순히 일곱을 뜻한다. 그러므로 일곱을 70개 정하였다. 그러면 일곱 무엇인가?(초, 분, 시간, 날, 달, 해..)

70이레 동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 6가지를 하신다.

1. 죄와 관련된 것: (1) 유대인들의 범법을 그침, (2) 민족의 죄들을 끝냄, (3)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룸.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죄와 불법으로 인해 포로 생활, 예수님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 내용, 죄 문제, 어떻게 민족의 죄를 처리하는가? 응답: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1) 그분은 온 세상의 죄들(요1:29; 요일2:2), (2) 교회(엡5:25), (3) 이스라엘(사53:8), (4) 유대 민족(요11:44-52 특히 50절)
2. 의와 왕국과 관련된 것: (1)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다. 주님의 재림은 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의로운 왕국(렘23:5-6; 31:31-34; 사51:6-8), 의로운 통치(사4:2-6), (2) 환상과 대언 불필요(사 11:9; 함2:14; 슥13:1-4), (3) 메시아의 기름부음, 지극히 거룩하신 이(the most Holy) 혹은 지극히 거룩한 곳, 킹제임스 성경은 인격체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에스겔서 40-48장의 성전으로 보기도 한다. 마12:6 성전보다 크신 이, 또한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메시아가 거룩히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이 6개를 통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됨. 스가랴서 12-14장을 보면 자세히 나옴.

- (1)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 용서, (2) 예루살렘 재건축, (3) 성전과 섬김 사역 회복

25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70이레 기간 설명, 490년으로 일단 이해하고 뒤에 설명

예루살렘 회복 및 건축,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BC 536, 스1), 아닥사스다의 에스라 귀환(스 7:12-26; BC 457) 성전과 섬김, 아닥사스다의 느헤미야 귀환(BC 445, 느2:5-8) 성벽 건축 그 명령부터 메시아까지 7이레+ 62이레=69이레, 483년, 이때에 거리와 성벽이 건축된다.

26절: 그때에 메시아가 죽는데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거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치 않나이다”(요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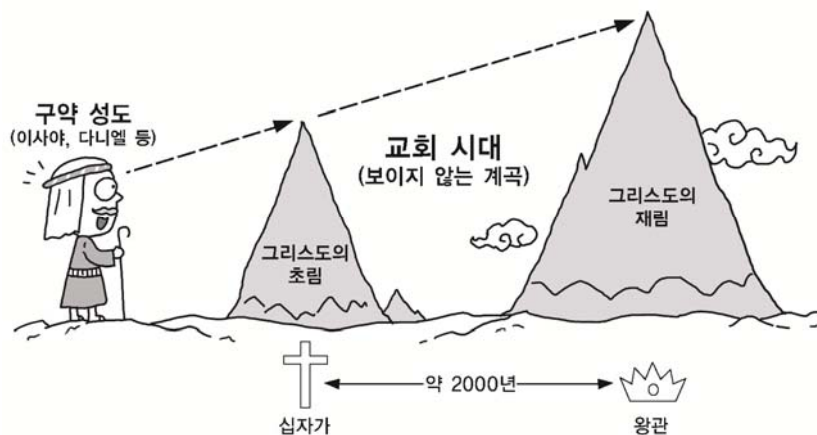
그리고는 갑자기 장차 임할 통치자가 등장해서 도시와 성소 파괴, 홍수(계12:13-17), 황폐하게 하는 것(마24:15-16)

메시아의 죽음 이후로 시간을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으로 넘어감

이 기간은 유대인들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이다.

교회 시대는 구약 유대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다(엡3:1-13).

1. 구약시대 유대인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속에 거하시리라는 내용도 들어보지 못했다.
2. 또 메시아가 왕으로 온 땅을 치리하고 다스릴 것을 알았다(미5:2; 사9:6-7; 단7:13-14; 렘 23:5-6).



3.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27절: 그(적그리스도)가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함(7년)

3년 반 이후에 가증함을 드러냄(살후2:3-4).

후반부 3년 반: 큰 환난(마24:21; 계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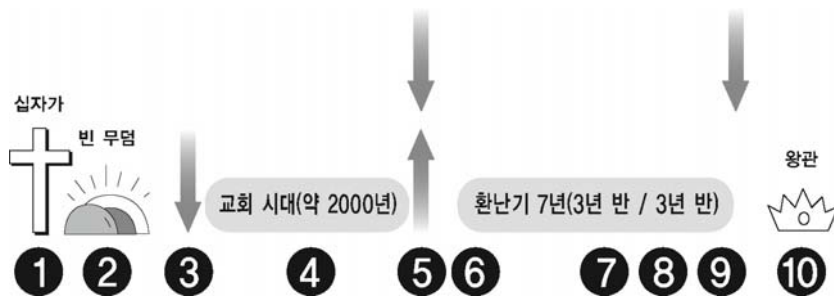
적그리스도(단7:25-27; 8:23-25; 계13)와 그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롬11:25-27)

7년 환난기

I. 환난기

A.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신 직후 환난기라고 알려진 7년의 기간이 시작된다. 이 7년은 '다니엘의 70째 이레'(단9:24-27)로 잘 알려져 있다.

B. 이 7년의 후반부 3년 반은 종종 대환난기로 불리는데(마24:21) 이는 그때가 세상이 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환난기가 끝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생긴다(마24:29-30).



1. 그리스도의 죽음(고전15:3; 롬5:8; 벰전3:18), 2. 부활(고전15:4; 롬1:4), 승천 행1
3. 오순절 성령 강림(행2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일
4. 현재의 교회 경륜(행15:14). 이미 2,000년이 지나갔음
5. 휴거와 부활(살전4:13-18)
6. 환난기 시작: 적그리스도와 언약(협약)을 맺음으로 7년이 시작된다(단9:27).
7. 7년 중간에 이 언약(협약)이 깨어지고 '죄의 사람'(적그리스도)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단9:27; 마24:15-21; 살후2:3-4).
8. 예수님께서 '큰 환난'(마24:21)이라고 말씀하신 나머지 3년 반: 전무후무한 재난의 때로서 사탄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때가 되며(계12:2-12) 사탄의 사람이 땅의 통치자가 됨(계13:1-10).
9. 환난기는 예수님이 큰 영광으로 땅에 임하심으로 끝날 것이다(마24:29-30; 계19:11-16).
10.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흔히 천년왕국 기간으로 불린다(계20장).

C. 환난기: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9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계시록 4-9장

D. 환난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제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1. 가령 계시록 6장, 8장 7-12절에 등장하는 심판이나 역병이 언제 일어났는가?
2. 언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았는가(계13:1-12)?
3. 온 세상이 한 사람의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었는가(계13:14-15)?
4. 모든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하던 때가 있었는가(계13:16-17)?

II. 특별한 고통의 때

A.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그들이 이 메시아를 거부하였고 결국 재림 때에 이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마23:37-39).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순순히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청난 환난 즉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왕국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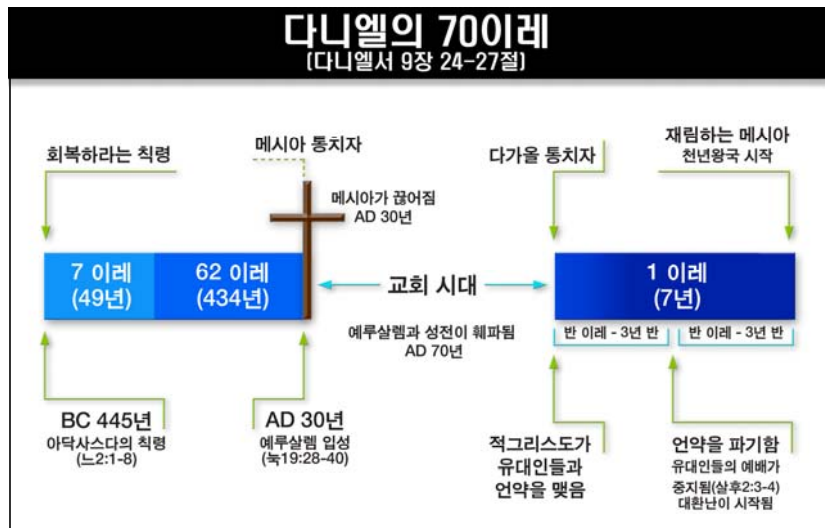
- B. 이스라엘의 환난기를 잘 이해해야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지, 환난을 통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신명기 4장, 다니엘서 2, 9, 12장, 스가랴서 12-14장, 마태복음 23-25장, 로마서 11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등이 잘 설명해 준다.
- C.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환난 즉 재림 전에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환난이다(마24:21).
- D. 예레미야서 30-31장은 특별히 이 환난에 대해 잘 기록한다(렘30:6-9).
- E. 바로 이런 기간이 환난기이다. 환난기의 1차 목적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꺾테기를 제거하고 알곡만 거두려는 것이다. '야곱의 고난의 날'
- F. 스가랴서 12-14장 역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한다(스13:8-9).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은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이 일은 세상의 창건 이래로 그 민족에게 없던 일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는 800만 명, 앞으로 1,000만 명 이상
- G. 환난기가 끝나고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일이 연이어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다.
- H. 예수님의 왕국 제안, 유대인들의 거절, 왕국의 연기, 재림 때에 왕국 시행, 그 전에 환난기 필요
- I. 이때에 교회는 휴거되고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아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다.

III. 환난기간: 70이레

- A. 환난의 기간: 다니엘서 9장 25-27절의 70이레
- B.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 아니라 70이레, 24절, 70이레는 490일이다. 483일+7일=총 490일, 여기의 하루를 실제 하루로 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 1.36년 No! 하루를 일 년으로 보아야 한다(민14:34; 겔4:6). 거의 모든 주석가들과 목사들이 이에 동의한다.
- C.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는 BC 540년경, 그때 이후의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때로부터 69이레 즉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 D. 느헤미야 당시 BC 445년의 아닥사스다의 칙령, AD30년의 주님의 죽음, 30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483년(태양력으로는 476년), 그리스도까지 483년,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7년
- E. 27절은 '한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한 주간(7년)을 의미한다.
- F. 27절에는 '그 이레의 한중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G.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 환난기는 후반기 3년 반이다. 즉 유대인들이 실제로 큰 고통을 겪는 기간이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3년 반이라는 뜻이다. 성경은 이 3년 반의 기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1. 다니엘서는 봉인된 책(단12:4), 한 때 두 때 반 때(단12:7), 반 이레(단9:27)



2. 1,260일(계12:6, 11:3), 3. 마흔 두 달(계11:2; 13:5), 4. 한 때, 두 때, 반 때(계12:14) -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며 반 때는 반년이므로 모두 3년 반이다.

H. 환난기 동안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이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세상에 임할 환난과 고통의 때로부터 교회를 떼어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4-19장까지는 환난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교회가 이미 휴거되어 없으므로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계4-19장). 물론 '교회'라는 단어도 발견할 수 없다.

다니엘서 강해 19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의 금식 기도와 응답

다니엘의 70일: 유대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70년이 아니라 70이레(490년)를 정하였다.
70째 이레는 7년 환난기를 뜻한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다니엘서 9장의 한 이레(7년, 42달,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첫 3년 반	한중간	마지막 3년 반
마태복음 24:1-31		
전쟁, 역병, 지진, 거짓 그리스도들(1-14)	멸망의 가증한 것(15-19)	창세 이후로 없는 큰 환난(20-22)

9장은 다리오의 1년 즉 BC 539년의 일

10장은 고레스의 제 3년 BC 533-4년의 일, 단1:21의 고레스 1년은 왕의 신하로 재직할 때

고레스 1년: 유대인 포로 귀환, 스1:1-3, 2:1, 64(전체 회중이 42,360명)

다니엘은 15세쯤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다 채우고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도 보며 이제 88세쯤 되었다.

하나님은 10-12장을 통해 다시 한 번 유대인들의 미래를 확실히 보여 주심

1절: 참된 일이 계시됨, 정해진 때는 길다(즉 유대인들의 마지막 때), 다니엘이 자기의 환상에 대해 확실히 깨달음

2-3절: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애곡함, 1월에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있다.

아마도 그는 새해의 시작인 1월 1일부터 금식했을 것이다.

그 이유: 잘 모르지만 추측해 볼 수 있다.

(1) 포로들의 귀환, 그런데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세우는 일이 쉽지 않음. 성전을 세우려 하니 반대자들이 나타나 방해하고 결국 작업이 중단됨(에스라 4장).

(2) 자기가 이미 받은 환상에 대해 더 알고자 함. 죽기 전에 조금 더 확실히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록하기 원함

4-9절: 1월 24일에 영화로운 분이 모습을 드러냄

4절: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

5-6절의 사람은 계1:12-16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

다니엘은 이 존재를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였다(계1:17).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있다(단3:25; 7:13).

그런데 왜 주님이 나타나셨을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주로 주의 천사로 나타나서 특별한 일이나 메시지를 주셨다(창16:7; 22:11; 출3:2 등). 여기서도 다니엘에게 그런 일을 하시려 한다. 마음이 순수한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마5:8).

지금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계시된다.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미래(10:14)를 보여 주시기 전에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 주시면서 확신을 주신다. 리더에게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더해 주신다. 무리를 이끌 수 있도록.

9장에 전개된 환상 계시는 전적으로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다.

10-12장도 마찬가지이다. 기억할 것: 예언은 이중 성취를 갖는다.

10-21절: 천사(아마도 가브리엘)가 나타나 다니엘을 돕는다(10). 천사는 성도들을 돕는 영(히1:14)

11절: 크게 사랑받는 사람(9:23; 10:19)

12-13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남, 땅에서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 하늘에서도 영적 전투가 벌어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페르시아 왕들 뒤에서 그들을 조정하는 악한 영
미가엘은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돕는 영(단12:1; 계12:9; 유9).

이것은 허구가 아니다. 루시퍼의 타락 때 천사들의 삼분의 일이 타락해서 정사, 권능, 왕좌, 통치(골

1:16)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들은 힘을 못 쓰게 되었다(골2:15). 큰 제국들에게 배정된 악한 영들이 있다(territorial spirits).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의 뒤에 있는 마귀가 원치 않는 일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이 유대인들을 도와 줌(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

즉 가브리엘은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기에 있었음. 그러나 그들 뒤에 있는 악한 통치자가 그를 가로막음. 미가엘이 도와줌

개역 성경은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바사국 군'으로 해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만들.

14절: 유대인들에게 임할 마지막 때의 일

15-17절: 다니엘이 기력을 잃음. 21일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었지만 결국 미가엘까지 동원해서 응답해 주심. 힘든 영적 싸움, 이것을 악용하여 새벽마다 다니엘 21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일천번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 샴니즘이요, 성도들을 속이는 일이다.

18-19절: 다니엘이 강하게 됨, 20절: 페르시아의 통치자와의 싸움이 끝이 아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나온다.

21절: 미가엘은 유대인들을 위한 천사, 진리의 성경 기록(11:2; 벤허1:20-21)

다니엘서 강해 20

다니엘서 11장: 페르시아, 그리스 왕국과 적그리스도의 왕국

21일 기도의 핵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마6:33)

바울의 경고(엡6:12)

다니엘서 11, 12장은 매우 길고 복잡하다.

11장 1-35절까지는 그리스 왕국 이야기(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11장 36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 적그리스도와 7년 환난기 이야기

11과 12장은 따로 떨어진 장이 아니다(12장 1-2절 설명).

11장 1-2절: 페르시아, 3-4절: 그리스, 5-20절: 알렉산더 이후의 시리아와 이집트, 21-35절: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6-12장 3절: 적그리스도와 환난기, 12 장 4-13절: 마지막 교훈, 11-12장은 이전에 주어진 그리스 왕국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들을 확실하게 보충해 준다.

1-35절은 다니엘 사후 400년 안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다니엘서 기록 BC 533년경, 에피파네스 BC 164년경, 그러므로 약 370년의 역사가 정확히 그려져 있다.

너무나 정확하기에 다니엘서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다: BC 16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책

다니엘은 역사적 인물이다(겔14:14, 20; 28:3). 예수님의 증언(마24:15)

요세푸스의 증언: BC 332년에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정복, 대제사장 얏두아가 다니엘서 8장 5-8 등을 보여 줌. 알렉산더가 놀라워 하면서 예루살렘을 휘파하지 않음.

1-2절: 메대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왕들은 유대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함

고레스 이후의 4왕: 캄비세스(Cambyses), 스메르디스(Pseudo-Smerdis), 다리오 히스타페스(Darius I Hystapes), 크세르크세스(Xerxes, 에스더기의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는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를 침략했지만 패배함.

3-4절: 그리스, 3절의 왕은 알렉산더, 4절은 그의 왕국이 네 조각남(8:8, 22 등, BC 323년).

5-20절: 여기의 남쪽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 북쪽은 셀레오쿠스의 시리아(그리스 제국의 후예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의 실제 역사를 예언으로 기록함

5절: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셀레오쿠스 1세

6절: 왕들의 정략결혼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자기 딸 베레니케를 주는 대신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부인인 라오디케와 이혼할 것을 요구함. 그런데 2년 뒤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죽자 안티오쿠스 2세는 자기의 전 부인인 라오디케를 데려왔으나 그녀가 왕과 베르니케를 죽임

7-9절: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베레니케의 오라비, 그는 시리아를 쳐서 성공함.

한참 지나서 BC 240년에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2세가 이집트를 쳤으나 패배함.

10-19: 프톨레마이오스 4세와 안티오쿠스 3세, 서로 영토를 넓히려고 싸우면서 이번에도 17절에 있듯이 정략결혼을 이룸. 이 구절들은 역사의 기록과 일치함

21-35절: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재위 기간 BC 175-163, 단8:9-14)

21-24절은 그가 권세를 잡는 과정을 표현함

원래 왕국은 그의 것이 아니었으나 법적 상속자인 그의 조카 데메트리우스가 없는 틈에 그가 그것을 차지함(21절)

23-24절: 이집트 침략, 그는 4차례 이집트를 침략함, 중요한 것 두 가지 요약

25-28절의 1차 이집트 침략: 이집트 전체를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에피파네스가 이집

전쟁 이후 돌아가면서 BC 170년경에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희생을 물 드리지 못하게 하며 많은 유대인을 죽이고 군대를 남김

29-35절의 2차 이집트 침략(BC 168년): 다시 이집트를 치러 갔으나 로마의 간섭으로 성공하지 못함.

30절의 깃딤의 배들: 깃딤은 지중해 연안의 섬들과 지역(로마)

돌아가면서 그는 BC 168년 12월 14일에 제우스 형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드림으로 성전을 더럽힘(31절의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때에 매국노들이 생김(34절)

소수의 신실한 유대인들을 에피파네스를 대적하며 전쟁을 벌임(33-35절): 마타디아스 제사장 가문 주동
마타디아스의 다섯 아들: 마카비 전쟁, BC 164년 12월 25일에 성전을 빼앗고 다시 봉헌하며 하누카 축제를 엮

천사 가브리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한 뒤 35절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을 보여 준다.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에피파네스가 행한 성전 훼파와 희생물 제거 그리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일은 예표이고
실제는 맨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9:27(마24:15)

36-12장 1절: 시간을 뛰어넘어서 환난기로 간다.

단9:26의 장차 임할 통치자. 환난기는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

36-39절: 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단7:11, 25, 8:23-25; 살후2; 계13)

37절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어찌면 그는 유대인 혈통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여인들의 바라는 것: 유대인 여인들의 소망, 메시아를 출산하는 것

38절: 힘의 신 숭배

40-45절: 이 부분은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루어질 일로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12장 1절은 11:40-45 다음, 그런데 시작이 '그 때에'(at that time)로 되어 있음.

어쨌든 이 시점에 유대인들은 지극히 큰 어려움에 봉착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기

다니엘서 강해 21

다니엘서 12장: 환난기에서 유대인들 구출, 유대인들 부활, 다니엘 부활

1절: 이스라엘의 수호 통치자 미가엘이 등장함(계12)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고 성전을 더럽히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단9:27; 마24:15) 후반부 3년 반, 계시록 11-19장, 특히 12장은 마귀가 이스라엘을 극도로 핍박하는 때(마24:21)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1 슥13:8-9)

이때에 미가엘이 등장한다(계12:7).

계시록은 삼분의 이가 유대교 색채(404절 중 278절),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모르면 이해 불가능 이 3년 반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음(롬11:2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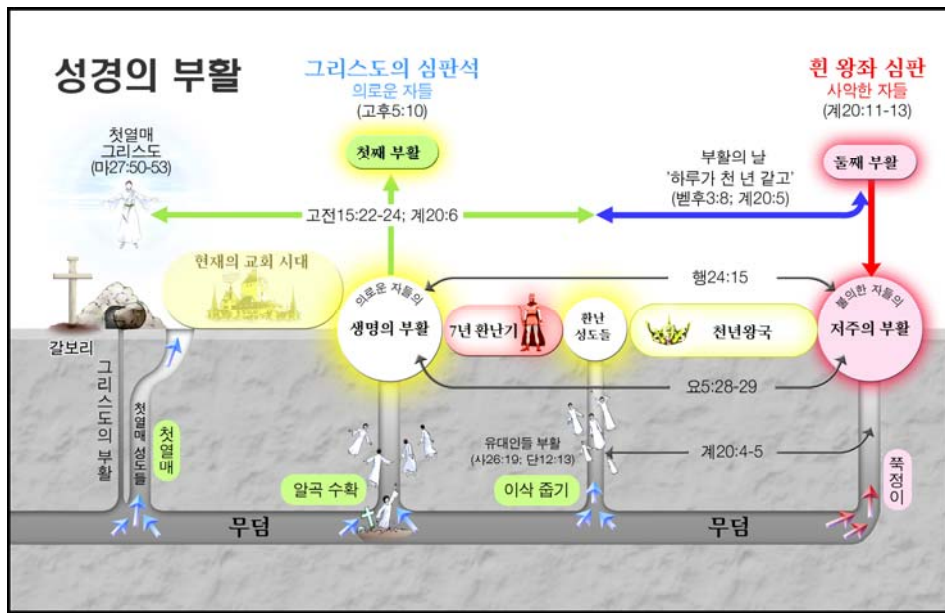
2절: 구약성도들의 부활(사26:19-27:1)

성경의 부활(욥19:25-29; 사26:19-21; 단12:2, 13; 요5:28; 요11:23-24; 행24:15; 고전 15:22-24; 계20:6), 단 한 번의 일반 부활로 이해하기 쉬움

1. 의인들의 부활(첫째 부활)

- a.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 환난기 끝
- b. 신약시대 성도들의 부활(마27:50-53; 고전15:22-24; 살전4:13-18): 환난기 시작 전
- c. 환난기 성도들의 부활

2. 악인들의 부활(둘째 부활): 1000년 왕국 이후(계20:11-15)



3절: 보상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욥28:28; 시111:10; 잠1:7; 마10:28)

말3:16-18, 계22:12, 불신자도 계20:12-13

4절: 봉인된 책

아무도 못 본다는 뜻이 아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위해 소중하게 간직된 책, 또한 그 안의 뜻이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마24:15).

단2, 7-11장의 유대인 관련 모든 계시들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고 지식이 증가한다.

비행기, 컴퓨터: 틀린 말은 아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속도로 다니고 지식이 폭발한다.

그러나 앞뒤 문맥으로 보면 진리의 지식이 편만하게 퍼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암

8:11-13). 말씀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찾는다.

5-7절: 마지막 때

또 다른 두 천사가 티그리스 강 독에 나타남

6절의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10:5-6에 나오는 존재, 예수님

그 기간은 한 때, 두 때 반 때(3년 반) 즉 환난기의 후반부 3년 반이다(7:25; 계12:14). 42달(계11:2; 13:5), 1260일(계11:3)

물론 여기의 거룩한 백성은 유대인 즉 다니엘의 백성이다.

8-9절: 다니엘의 질문과 응답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한가?

다른 계시를 주지 않음(신29:29).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임

10절: 두 부류의 사람들, 계22:10-11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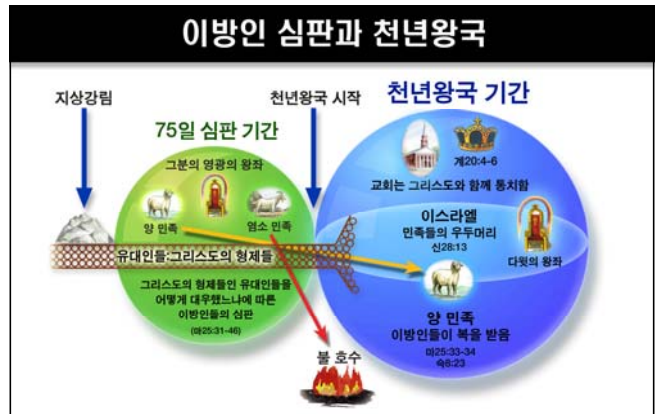
11-12절: 1260일, 1290일, 1335일,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음

7년 환난기 이후의 일들

민족들 심판(마25)

민족들 처리(겔39:9-12)

성전 건축(겔40-48)



13절: 다니엘의 부활

다니엘서 강해 22

안식교의 유래 및 문제: 다니엘서 8-9장

유튜브 등에서 다니엘서 강해를 찾으면 안식교 교리를 가르치는 김병국 목사의 것이 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분은 안식교 교리를 가르친다. <생애의 빛> sostv.net, 안식교 이단 교리 전파 안식교(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1. 역사

A.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 1782년 매사추세츠 주 피츠필드에서 출생, 회의론자였으나 1816년 개종함. 침례교 목사

(1) 2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 뒤 다음과 같은 시한부 종말론의 결론을 내림: “1818년에서 25년이 지난 1843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2) 그 뒤 4년여를 더 공부한 뒤 공식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자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름.

(3) 밀러의 날짜 계산 방법:

a. 다니엘서 9:24-27(70이레)을 인용함

b.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은 날(BC 457년)로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전에 2,300일이 지나야 함(단8:14).

c. 성소가 정결케 됨=예수님의 재림, 하루=1년, 그러므로 BC 457부터 2300년이 지나면 1843년이 됨.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0일까지 1년 사이

d. 그러나 밀러파 추종자들의 실망 속에 1843년이 지나감. 그들은 이 사건을 ‘대실망’이라 부름.

e. 그 이후 많은 이들이 밀러파를 떠났지만 여전히 다수는 재림을 기다림.

B. 히람 에드슨(Hiram Edson)

(1) 역시 밀러 추종자중의 한 사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상을 품

(2) “주님께서 천상의 성소에서 나오셔서 2300년이 되는 해인 1843년에 오시는 대신 천상의 성소 안에 있는 둘째 방(지성소)에 들어가심. 그분께는 재림 전에 할 일이 남아 있음”

(3)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매일 매일의 사역이 있고 일 년에 단 한차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케 함

(4) 매일 사역: 수세기의 기독교 시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매일 사역을 해 오심. 그 결과 죄는 용서받았으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님.

(5) 연중 사역: 1884년 10월부터 죄를 없애 주는 사역이 시작됨. 이 일이 끝나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심

(6) 여기에서 안식교의 ‘조사심판 교리’라는 것이 나옴.

C. 조셉 베이츠(Joseph Bates)

(1) 크리스천이 지켜야 할 날이 안식일이라는 교리를 확립, 안식일 준수=구원의 조건

(2)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규정

(3)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봉인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봉인이 바로 안식일임

(4) 봉인 받은 자의 수효가 144,000명이며 바로 이들이 안식교인임.

D. 엘렌 화이트(Ellen G. White)

(1) 예수 재림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1827년 감리교 가정에서 탄생

(2) 평생토록 병으로 고생했고 어려서는 마비 현상이 자주 나타났음

(3) 1840년, 1842년 윌리엄 밀러의 강연을 들은 뒤 그녀의 가족은 모두 밀러주의자가 됨

(4) ‘대실망’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환상을 봄, 23년간의 사역 기간에 100-200번의 ‘펼쳐진 계시’를 봄

- (5) 안식일 교도들의 신앙과 활동이 그녀의 환상이나 가르침 등에 의해서 고무됨.
- (6) 1845년 2월: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환상을 봄, 이 환상을 통해 조사 심판 교리가 확증됨
- (7) 1847년 4월: 지성소의 언약궤와 그 안의 십계명을 보았는데 제4계명 즉 안식일 계명에 승리의 광채가 나는 것을 봄, 이 환상을 통해 안식일 성수 교리가 확증됨

2. 현황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백만의 신도들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삼육 재단, 이상구 박사 등이 안식교와 관련되어 있음

3. 재림 안식일 교회의 이단 교리 요약

- A. 영혼 불멸 부인(부활 신앙)
- B. 믿음 더하기 행위에 의한 구원(조사 심판)
- C. 주일과 안식일의 문제(율법 주의)
- D. 이 외에도 십일조에 의한 구원, 고기, 커피 등을 금하는 것 등이 있음

4. 날짜 계산 오류

안식교 설립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소 정결까지 2,300일 성경에는 예언의 날이 있고 그 경우 하루가 1년으로 해석된다: 단9:24-27의 70이레 27절의 한 이레의 한 중간, 한 때 두 때 반 때(7:25; 12:7), 계시록의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42달 등을 보면 490일은 반드시 490년이 되어야 한다. 민14:34; 겔4:6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데 안식교를 시작한 밀러(William Miller)는 단8:14의 2300일을 2300년으로 계산하였다. 계산의 기점을 BC 457년으로 잡고 2300일을 2300년으로 환산하여 1844년을 얻음. 그래서 예수님이 1844년에 재림할 것으로 예측하였다(예수재림 제칠일 안식교회). 그 뒤 1844년 10월 22일로 재림 날짜 연기 일단 BC 457년도 틀린다. 느헤미야 당시 BC 445년의 아닥사스다의 칙령, AD30년의 주님의 죽음, 이렇게 해야 정확히 483년(태양력으로는 476년) 이후에 예수님의 처형이 있다. 단8:13-14의 2300일은 하루를 일 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구절이다. 그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당시에 그가 2300일 동안 유대인들을 괴롭힌 기간이다.

4. 조사 심판: '믿음 더하기 행위'에 의한 구원

여기서 조사 심판 교리가 나온다.

조사 심판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844년 10월 22일까지는 하늘 성소에 계시다가 그날 드디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조사하고 계신다는 것 신구약 성경을 망라하여도, 1844년에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이나 조사심판이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다. 다만 에드슨, 화이트 등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즉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히6:20; 9:12). 그들은 죄의 소멸 작업 혹은 진정한 속죄가 1844년 10월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시작되었다고 주장함.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속죄를 마련하는 희생을 드렸으며 승천 후에는 이 헌신을 적용한다고 가르침.

현재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조사 심판'하여 믿는 자 중에서도 '합격', '불합격'을 가리고 있는 중임.

그들은 '죄들의 사면 혹은 용서'와 '죄의 말소' 사이에 구분을 둬.

즉 사람이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지만 죄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침

그리고 실제적인 죄의 말소는 구원받은 뒤의 행위와 태도에 의해 결정됨.

여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함.

'믿음 더하기 행위'에 의한 구원; 반박 성경 구절: 엡2:8,9; 딛3:5; 히9:12; 28; 10:18

다니엘 요약

다니엘서의 예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니엘 자체가 중요하다.

그의 특징(1:8)

1. 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단4:25, 32).
2. 그는 경건함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느부갓네살의 음식, 형상 해석, 사자 굴, 이스라엘 민족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다.
특히 청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3.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믿었다(단9:23).
4. 그는 영적 전쟁을 알고 있었다(고후10:1-6).
5.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 하였다(2:28)
6. 그는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였다. 심지어 그의 원수들도 그를 트집잡을 수 없었다.
7. 그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히 여겼다.
8. 그는 인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난다.
9. 그는 이름값을 하였다(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삶을 살았다.